

정조(正祖)의 궁원(宮苑) 유락(遊樂)*

홍형순

중부대학교 환경조경학과

Jeongjo's Enjoyment of the Palace Garden

Hong, Hyoung-Soon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ality behind Jeongjo's enjoyment of the palace garden. If I were to summariz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y are as follows:

First, The 'Sanghwajoeoyeon(賞花釣魚宴)' has the differentiation which decided and regularized the rules and the regulations with the annual meetings for the Kyujanggak(奎章閣). Jeongjo had held the events five times.

Second, The 'Seshimdae(洗心臺) Excursion' is based on the tragic personal history of Jeongjo. There were four events.

Third, Jeongjo had enjoyed the 'viewing of the waterfall(觀瀑)' of the Okryucheon(玉流川) where a lot of the water overflows right after it rains. This is worth the special mention with regard to the point that it is a temporary landscape and not an usual landscape.

Fourth, As an event for the military officers, the 'Seoljungryonghohwe(雪中龍虎會)' was held seven times. This event had been held in the middle of the winter. And each of the attendees skewered a pheasant and roasted and ate it. Also, it emphasized the sovereign and the subjects being the partners of the joys and the sorrows by giving the alcoholic drinks and the music.

Fifth, Jeongjo had consoled the hard work by the civilian subjects either by holding the brazier feast(煖爐會) in the winter or by granting the alcoholic drinks and the food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facts of the brazier feasts.

Sixth, Jeongjo was good at archery and enjoyed it. During the period of his reign, Jeongjo held twice Yeonsarye(燕射禮).

Seventh, Jeongjo soothed his desire to get out of the busy everyday life at the royal palace garden. While appreciating the natural landscape of the backyard, he was awakened of the meaning of the Book of Changes(周易) in which all the things had been created and changed.

Eighth, At the royal palace garden, Jeongjo actively prepared the place for enjoyment by the sovereign and the subjects together. It is judged that this is because, in order to materialize his political ideals, the support by all the subjects who had been close was needed.

The limitation of this research is the fact that the research had been proceeded with limited to the translations, among the many old writings related to Jeongjo. With the accumulation of the excavations of the new thoughts and of the results of the translations, the researches that are deeper will be needed.

Key words : Brazier Feast(煖爐會), Sanghwajoeoyeon(賞花釣魚宴), Seoljungryonghohwe(雪中龍虎會), Seshimdae(洗心臺) Excursion, Viewing of the Waterfall(觀瀑)

* 이 논문은 2015년도 중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이 논문은 2015년도 한국전통조경학회 추계학술대회(2015. 10. 23. SH공사) 발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Corresponding Author** : Hong, Hyoung-Soon, Dept. of Environmental Landscape Architecture, Joongbu University, Daehak-ro Chubu-myeon, Keumsan-gun, Chungcheongnam-do, 32713, South Korea. Phone : +82-41-750-6740, E-mail : hshong@joongbu.ac.kr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정조가 궁원에서 즐긴 유락의 실태를 규명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화조어연’은 규장각을 위한 연회로 규례를 정하고 정례화 했다는 차별성이 있다. 정조는 다섯 차례의 행사를 열었다.

둘째, ‘세심대 놀이’는 정조의 비극적인 개인사를 바탕으로 하는데, 네 차례의 행사가 있었다.

셋째, 정조는 비가 내린 직후에 맑은 물이 흘러넘치는 옥류천의 ‘폭포 구경’을 즐겼다. 이는 일상적 경관이 아니라 많은 비가 내린 후의 임시적인 경관을 즐겼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넷째, ‘설중용호회’는 무신들을 위무하는 자리로 일곱 차례의 행사가 있었다. 한 겨울에 열린 이 행사에서는 참석자들이 각자 쇠 꼬치에 꿩을 꿰어 구워 먹게 했다. 또 술과 음악을 베풀어 군신(君臣)이 고락을 함께하는 것을 강조했다.

다섯째, 정조는 겨울철에 난로회를 열거나 난로회의 고사에 따라 술과 음식을 내려 문신들의 노고를 위로하기도 했다.

여섯째, 정조는 활쏘기에 능했으며 이를 즐겼다. 정조 궁중의례인 연사례를 복원하고자 하였으며 두 차례의 연사례를 열었다.

일곱째, 정조는 바쁜 일상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후원에서 달랬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정조는 후원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만물이 생성, 변화하는 주역의 의미를 일깨우기도 했다.

여덟째, 정조는 궁원에서 ‘군신동락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했다. 정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측근 신료들의 지원이 필수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정조 관련 여러 고문헌 중 번역물에 국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번역 성과물이 축적됨으로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난로회(煖爐會), 상화조어연(賞花釣魚宴), 설중용호회(雪中龍虎會), 세심대(洗心臺) 놀이, 폭포 구경(觀瀑)

1. 서론

1. 연구의 목적

정조 5년(1781년) 9월 3일, 정조는 강세황(姜世晃, 1713년~1791년) 등 8명의 신하들을 금원(禁苑) 깊숙한 곳까지 친히 안내하며 여러 정자와 아름다운 경치들을 소개했다. 유람 도중에 과일을 주어 갈증을 해소하게 했으며, 유람을 마치고는 진기한 음식을 내려 신하들이 먹고 마시게 했다.

표암(豹菴)은 이날의 ‘영광스러운 일’을 「호가유금원기(扈駕遊禁苑記)」 즉 ‘어가를 따라 금원을 유람한 기문’으로 남겼다. 이 글에서 표암은 “... 어찌 우리 임금께서 몸소 이 미천한 신하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뛰어난 경치를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온화한 얼굴과 따뜻한 음성으로 한 식구처럼 하신 것과 같겠는가! ... 멍하니 하늘 상제의 세계에 오른 꿈에서 깨어났나 의심했다. 대략 적어서 우리 자손들에게 전하여 보이노라.”라고 했다[1].

정조는 1776년 3월 10일 승정문에서 즉위하여 정조 24년(1800년) 6월 28일 영춘헌에서 서거하였다. 영조의 치세기와 함께 이 시기를 ‘조선의 문예 부흥기’라 칭한다. 필자는 「호가유금원기」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고찰한 바 있는데[2] 이 연구 이후에 후속되는 여러 의문점이 많았다. ‘호가유금원’과 같

은 행사가 더 이상은 없었는가? 약 25년간의 재위기간 동안 정조는 궁원을 어떻게 활용하였는가? 정조는 왜 궁원에서 군신(君臣)이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무엇을 하며 즐겼는가? 등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조가 궁원에서 즐긴 유락(遊樂)의 실태를 규명하는 것이다. 정조는 궁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이용하였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사료를 통한 실증적 고찰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대효과는, 조선의 문예 부흥기에 정조의 궁원 유락 사례의 고찰을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궁궐의 조경문화사적 가치를 재조명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궁궐 관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 구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사

궁원에 관해서 창덕궁 후원의 공간구성과 식재, 경관 특성, 원형 경관과 경관 변천 등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왔다. 정조와 관련된 조경사 분야의 연구로, 정조가 세손시절에 쓴 「상림십경」을 통해 창덕궁 후원의 경관적 맥락을 해석한 연구[3]가 있다. 또 「호가유금원기」를 통해 정조 연간 창덕궁 후원의 원형과 전후 변화상을 고찰에 관한 연구[4]와 이 기문에 담긴 내용과 조경사적 의미에 대해 고찰한 연구[2]가 있

다.

궁원의 이용과 관련된 연구로는, 경복궁과 창덕궁 및 후원의 공간 이용행위를 고찰한 연구가 있다[5][6]. 이 연구들은 『조선왕조실록』의 관련 기사를 토대로 수행하였으며 왕의 공식적 행위에만 국한한 연구로서의 한계가 있다.

창경궁 후원의 춘당대와 관동각 및 관덕정 영역에 대한 도상자료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이용 실태와 경관적 특성을 고찰한 연구[7]를 통해 후원의 이용 실태는 왕과 신하들의 관경, 친잠과 친경, 기우제 등을 비롯해 망배례와 연회 등 왕실행사, 문과와 무과의 과거시험, 활쏘기와 무예 조련 등이 있었음을 밝혔다.

선행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궁원의 이용 실태들은 대부분 의례와 제례, 과거 시험과 조련 등 왕의 공식 업무와 관련된 행태에 한정되어 있다. 역대 왕들이 자신의 주거지이자 생활공간인 궁원에서 유락을 즐긴 사례에 주목한 연구는 없었다.

II.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조선시대의 역대 왕들은 엄격한 법도에 따라 빠듯한 일과를 보냈다. 하루에 조강(朝講)과 주강(晝講), 석강(夕講) 등 세 차례의 경연(經筵)에 참석해야했으며, 매일 아침에 조회인 조참(朝參) 혹은 상참(常參)이 열렸으며 수많은 국사를 처리해야 했다. 정조는 유난히 바쁘고 부지런한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Ahn(2009)은 정조의 인간적 면모 중의 하나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생활’을 보낸 점을 들었다[8]. 정조 스스로도 “나는 바빠서 눈코 뜰 새 없으니 괴롭고 괴로운 일이라!(此中役役 眼鼻莫開 苦事苦事)[8].”라고 하였다. 이런 일상 속에서 정조는 궁원에서 어떠한 여가를 즐겼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궁원은 통치권자인 왕이 각종 공식 행사를 주관하는 등 통치행위를 행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궁원에서는 의례(儀禮)와 과거시험, 시사(試射)와 습진(習陣) 등 왕이 주관하는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으며 이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들이 축적되어 있다. 한편 왕의 일상적 생활공간이라는 측면에서 궁원은 ‘열락정원(悅樂庭園, pleasure garden)’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정조가 단독으로 혹은 신하와 더불어 즐기는 ‘열락정원’으로서의 궁원 기능에 한정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궁원이다. 그러나 정조는 궁궐과 인접한 승경지인 세심대(洗心臺)에 나가 신하들과 꽃구경 등을 한 기록이 여러 차례 있다. 봄철에 열린 이 행사는 정례화 되어 ‘세심대 놀이’로 정착하였으며 따라서 이 행사도 본 연구에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사료에 담긴 내용과 의미를 고찰하고 해석하는 기술(description)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를 진행

하기 위한 1차 사료는 『정조실록』 [9], 『일성록』 [10] 등 편년체 사서이다. 특히 『일성록』은 잠재 시절에 정조가 자신을 반성하기 위해 쓰기 시작한 일기로부터 즉위 후에는 국정과 정치에 참고하는 나라의 일기로 발전하였다[11]. 따라서 『일성록』은 실록에 기록하지 않은 미시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사료이다. 편년체 사서만으로는 정조의 여가 활동 등 개인적 성향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2차 사료로 『홍재전서』 [12]에 실린 시문 등을 고찰하였다. 『홍재전서』는 정조의 글들을 종류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으로 정조대의 문화를 이해하는데 필수자료[13]이기 때문이다. 특히 여기에 포함된 『일득록』은 정조의 말과 행동을 신하들이 기록한 것으로 그의 성격과 학문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밖에도 『다산시문집』 [14] 등 정조의 행적이 기록된 동시대의 일반 문집도 함께 고찰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상화조어연(賞花釣魚宴)

1) 상화조어연의 의의와 성격

정조 이전의 역대 왕들도 궁원에서 신하들에게 ‘어연(御宴)’을 베풀곤 했다. 『동각잡기』 [15]에는 중종 35년(1540년) 3월에 ‘상화연’을 열어 경희루에서 신하들과 무예연습을 관람하고 시 짓기와 후원에서 꽃구경을 했으며 술을 하사하여 모두 취하여 나왔다는 기록이 있다.¹⁾ 같은 책에 명종(재위 1545년~1567년)도 후원에 거동하여 신하에게 술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15]. 또 영조 5년(1729년) 정월에도 대궐 뜰에서 잔치를 차려 술과 음악을 내리고 참여한 사람에게 각각 납촉(蠟燭) 한 자루씩을 주고 밤이 깊도록 놀다가 파하게 하였다. 이밖에도 숙종과 영종 재위기간에 여러 차례의 상화연이 있었으며 정조 치세기를 거쳐 순조, 헌종, 철종, 고종 대에도 이 전통이 이어졌음을 실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역대 왕들의 ‘상화연’과 달리 정조 재위기간의 ‘상화연’은 규례를 정하고 정례화 했다는 차이점이 있다. 정조는 즉위년(1776년)에 규장각을 설치하여 왕정의 핵심기구로 삼았다. 이는 송(宋) 대의 천장각을 전범으로 했는데 규장각은 정조의 개혁정치와 왕권강화의 상징적 공간이며 학문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후 정조 5년(1781년) 2월 13일에야 비로소 규장각의 제반 규율과 의례(儀禮)가 완비되었다. 이 날 기록에 정조는 “송 태조(太祖)가 포연(醕宴)을 내린 고사를 인용하여 … ‘이제 내각(內閣)을 새로 창건한 때를 당하였으니 의당 고사를 수거(修擧)하여야 한다. 해마다 3월과 9월에는 반드시 한가한 날을 선택하여 봄, 가을로 유락하되 기일에 앞서 초기(草記)를 올려 취품(取稟)하여 유지(有旨)를 얻은 연후에

유하정(流霞亭)으로 나아간다.’...²⁾라고 했다. 이에 의하면 성밖의 유하정을 규장각에 귀속시켜 독서당으로 사용하게 했으며 봄, 가을의 영절(令節)에 규장각의 각신(閣臣)은 유하정에 나가 유락하는 것을 규정으로 정한 것이다. 그러나 각신들이 성 밖에 나가 연회를 갖는 것에는 제약도 있었을 것이며 국가적 우환 등으로 인해 실제로 정조 연간에 유하정에 나가 유락한 기록을 실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³⁾ 후에 이 행사는 봄철에 내원에서 꽃구경과 낚시를 즐기는 ‘상화조어연’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행사는 ‘꽃구경하는 잔치라 해서 ‘상화연(賞花宴)’이라고도 하며, 규장각의 별칭인 내각(內閣)을 사용하여 내각상조회(內閣賞釣會) 즉 ‘각신들의 꽃구경(賞)과 낚시(釣)하는 잔치(會)’라고도 했다.

정조는 각신들을 위해 상화연을 베푸는 이유와 그 의의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에 의하면 궁궐의 후원에서 왕이 베푸는 연회에 외척이 아니면 참여할 수 없었던 전례에 비해, 자신은 정치에 간여하는 외척의 폐단을 경계하고 어진 사대부를 우대함으로써 바른 정치를 하려는 것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다는 것이다.⁴⁾ 정조 19년(1795년)의 상화연에서도 “예로부터 내원의 놀이에는 척리(戚里)가 아니고서는 들어와 참여할 수가 없었으니 외신(外臣)을 내연(內宴)에 참여시킨 것은 특별한 은전이라 하겠다.”⁵⁾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이 규례에 의하면 군신이 함께 꽃구경을 하고 물고기를 낚는 상화조어연은 규장각이 주관할 뿐만 아니라 오로지 규장각을 위한 연회이다. 이는 정조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규장각에 거는 기대와 그 역할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상화조어연은 후술할 여타의 궁중 연회와 차별성이 있다.

2) 개최한 해와 행사 개요

상화조어연이 처음 열린 것은 정조 12년(1788년) 봄이다. 『정조실록』이나 『일성록』에는 이에 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다만 『홍재전서』에 “규장각을 설치한 것은 천장각의 고사를 본뜬 것이다. 봄마다 각신과 내원에서 꽃구경하고 낚시질하는 것을 정례화 하였는데, 이것 또한 고사를 따른 것이다. 이 모임은 각신이 주관하고, 각신이 아닌 사람은 참여하지 못한다. ... 이 놀이는 무신년(1788년)에 시작하였는데 참여한 이는 9명이었다.”⁶⁾라고만 기록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 즉위년(1776년)에 규장각이 설치되었고 그에 관한 절목은 정조 5년(1781년)에 완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조 12년(1788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상화조어연이 열린 것이다. 이는 정조 즉위 초반에 정치적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 짐작 된다. 더구나 이 행사의 참석자도 9명으로 단출한 규모였다.

두 번째 상화조어연은 정조 16년(1792년) 3월 21일에 있었다. 실록에 의하면, 정조는 이날 규장각 신하들을 ‘집안사람을 대하는 예(禮)’로 대한다고 했으며 이에 따라 각신의 자제와 아우까지 29명이 참석했다. 『일성록』을 토대로 이 날의 행사

를 요약하면, 정조는 참석자들에게 음식을 내리는 선반(宣飯)을 한 후 모두 말을 타고 성도문, 연생문, 명광문, 청양문, 농산정을 거쳐 존덕정에서 쉬었다. 옥류천의 물이 소리를 내며 흘러갔고 산두견화와 백목련이 아름다웠다고 한다. 다시 말을 타고 영숙문, 영화당을 지나 수택재로 갔다. 모두 연못가에 둘러앉아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를 낚을 때마다 깃발을 들고 풍악을 연주하게 하였다. 배를 대고 참석자들은 번갈아 배를 탔으며 생(笙), 적(笛), 부(缶), 소(簫) 등의 악기를 배에 싣고 노래를 잘 부르는 자로 하여금 어부사(漁父詞)를 부르게 했다. 시를 지은 후에는 걸어서 의춘문을 거쳐 춘당대로 가 꽃떡을 부쳐서 나누어 먹었다. 동쪽 언덕에 사후(射侯)를 설치하고 활을 잘 쓰는 사람들과 짝을 지어 활을 쏘았다.⁷⁾

세 번째 상화조어연은 정조 17년(1793년) 3월 20일에 있었다. 이 해는 계축년이므로 난정수계(蘭亭修禊)의 고사를 따라 각신과 그 자제와 승지나 사관을 지낸 약간 명을 특별히 추가해 39명의 인원이 참석했다. 『정조실록』의 기록에는, 내원의 여러 경치를 둘러보고 옥류천 가에서 술과 음식을 내리고 물가에 앉아 시를 지었다. 신하들과 물고기를 낚은 후 방생했는데 정조는 “옛사람의 시에 이르기를, ‘자적(自適)함을 취하는 것이지 물고기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取適非取魚).’”⁸⁾라고 했다. 이 해 3월에 숙선옹주(淑善翁主)가 태어났으며, 「정조대왕 행장」에는 이날의 행사를 기록하며 “... 그때는 경사가 거듭 겹치고 조야(朝野)가 안정된 시기였다. ...”⁹⁾라고 하였다.

네 번째 상화조어연은 정조 18년(1794년) 3월 15일에 있었고 54명이 참석했다. 『일성록』에 의하면 이날 연회는 부용정을 출발하여 농산정, 의춘문을 지나 소요정에 이르러 경치를 두루 구경하게 한 후 유상곡수를 하였다. 청의정을 지나 농산정에서 시를 지은 후 구운 떡과 범주를 내렸다. 정조는 “시 한 수를 지을 때마다 술 한 병을 마시는 놀이를 이번 자리에서 빼놓을 수가 없다. 그대들이 술 마시는 것을 감독하여 한 사람도 마시지 않는 사람이 없게 하라.”¹⁰⁾고 했다. 영화당으로 가 활쏘기를 한 후 의춘문을 거쳐 부용정에서 낚시질을 했으며 옥적(玉笛)을 불며 뱃놀이를 했다. 달이 뜨자 뱃머리에 홍사롱(紅絲籠)과 청사롱(靑紗籠) 2쌍을 걸고 홍사롱 30대를 못가에 벌여 세웠다. 왕은 배에 술과 안주를 주어 시를 짓게 했다. 이후에 의춘문, 청양문, 연생문을 거쳐 영춘헌으로 갔으며 원자(元子)가 신하와 자제들에게 부채와 향, 채대(彩帶)를 나누어 주었다.

다섯 번째 상화조어연은 을묘년인 정조 19년(1795년) 3월 10일에 있었다. 이해는 정조의 선친인 사도세자가 태어난 해이다. 또 남편과 동갑인 혜경궁 홍씨가 회갑이 되는 해이자 정조가 즉위 20년을 맞는 해였다. 따라서 정조는 봄에 정순대비, 경모궁, 혜경궁의 존호를 더 올렸고 즉위 20주년 하례를 받았다. 이날 정조는 “올해야말로 천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경사스러운 해이다. 그러니 이런 기쁜 경사를 빛내고 기념하는 일

을 나의 심정 상 어찌 그만둘 수 있겠는가.”¹¹⁾라고 했다. 이전 연회의 참석 범위는 각신의 자제, 아우나 조카로 한정했으나 이 날은 재종(再從)과 삼종(三從)까지로 확대하고 영의정 홍낙성(洪樂性)의 아들과 손자, 각 판서 등을 추가하여 98인이 참석했다. 『일성록』에 의하면, 이날 참석자 모두가 말을 탔으며 단풍정과 청양문 거쳐 지날 때 길가에 진달래와 개나리가 피어 있었다고 한다[10]. 천향각에 어좌를 설치한 후 신하들과 유생들이 후원의 누대와 연못가의 정자 등을 구경하게 하였다. 이곳에서 술과 안주를 내려 옥류천과 농산정 주변에서 마음껏 쉬게 하였다. 이후 존덕정과 태청문으로 가 신하와 유생들에게 술과 떡을 내려 주었는데, 승지로 하여금 술잔 돌리는 것을 감시하게 하여 취하지 않은 이에게는 다시 술을 따라 주게 하였다. 이후 시를 지었으며 춘당대교가 활쏘기를 하였다. 또 부용정에서 낚시를 하고 저녁이 되자 음식을 내렸다. 달이 뜨기를 기다려 배에 술과 안주, 악기를 실어 뱃놀이를 했는데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어부사를 부르고 생황과 피리 소리가 어우러졌다고 한다. 연회는 밤이 되어서야 파했으며 이날은 야금(夜禁)도 풀었다고 한다.¹²⁾

정조 21년(1797년) 2월에는 이조판서와 우의정을 지낸 윤시동(尹蓍東, 1729년~1797년)이 사망하였다. 이에 정조가 하교하기를 “매년 상화연을 폐한 적이 없었으나, 금년에는 고(故) 우상(右相)이 원임 제학으로서 막 운명하였다. 어찌 시 짓고 술 마시며 잔치 베풀고 즐기어 옛사람들이 받았던 두거(杜舉)의 나무람을 불러들일 것인가. 장차 내년을 기다리리라.”¹³⁾하였다. 노신의 죽음으로 연기된 이 해 이후 상화초어연은 다시 열리지 못했다.

3) 참석자의 기록

정약용(丁若鏞, 1762년~1836년)은 가장 성대했던 정조 19년(1795년)의 연회에 참석했다. 그의 『다산시문집』 [14]에 실린 글을 통해 이 연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다산시문집』 제2권에는 연회 당일 지은 ‘삼가 어제 내원상화시를 화답하다(奉和聖製內苑賞花)’라는 시가 있다. 또 제4권에 있는 ‘부용정 노래(芙蓉亭歌)’는 당일 성대한 연회 모습과 서거한 정조를 회상하며 훗날에 쓴 시이다. 여기에는 춘당지, 농산정, 옥류천 등에 대한 경관과 춘당대에서의 활쏘기 모습 등이 묘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이날 정약용은 술을 못 마시기에 왕이 내린 술을 사양했으나 억지로 석 잔을 마시고 취하여 토하고 쓰러지기까지 하여 동료들의 놀림을 받기도 했으며 임금은 이를 보고 웃었다고 한다. 또 부용지에서 낚시질을 할 때는 고기를 낚지 못한 사람도 별주를 마셨다고 한다.

정약용은 이 행사에 대해 「부용정시연기(芙蓉亭侍宴記)」라는 기문(記文)을 따로 남기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유희삼아 즐겁게 놀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경들과 함께 즐기면서 마음을 서로 통하게 하여 천지의 조화에 응

하려는 것이다.”¹⁴⁾라는 정조의 말도 기록되어 있다. 또 군신이 함께 술을 마시는 모습과 부용정에서 낚시하는 상황을 상세히 적었다. 이에 의하면 뱃놀이를 하며 시를 지었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시를 짓지 못한 사람은 연못 가운데 있는 섬에 안치(安置)시키는 벌칙을 두었다. 실제로 몇 사람이 벌칙으로 귀양을 갔으나 곧 풀어주었다고 한다. 이날 연회는 늦도록 계속되었고 왕이 홍사촉(紅紗燭)을 하사하여 길을 밝히며 원(院)으로 돌아왔다고 한다. 또 다산은 자신의 묘지명(墓誌銘)을 직접 지었는데, 무덤에 넣도록 소략하게 지은 광중본(壙中本)과 문집에 신도록 상세한 집중본(集中本)을 따로 지었다. 이 집중본에도 이날의 연회를 자세히 기록하여 자신의 생애에 있어 중요한 사건으로 추억하고 있다.¹⁵⁾

2. 세심대(洗心臺) 놀이

1) 세심대 놀이의 의의와 성격

정조는 일곱 살 때(영조 35년, 1759년) 세손에 책봉되었고, 열 살 때(영조 39년, 1762년) 부친인 사도세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경험했다. 이후 이십 오세 때(1776년) 즉위하기까지 긴 기간을 당쟁으로 인한 불안한 정치상황 하에 사도세자의 아들로써 힘겨운 세손 시절을 보냈다. 정조의 여러 치적들은 이 사건과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된 것들이 많다고 한다[16]. 자신의 안위마저 위협받는 이 시기에 정조는 각별히 조심하고 학문에 정진하는 자세로 일관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스스로 노력하고 강해져야 했고 이러한 ‘자강불식(自強不息)’의 의지는 그가 세손시절에 쓴 ‘섬돌의 파초’라는 시와 ‘파초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17].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조는 권신들의 당쟁과 그 폐해를 적나라하게 겪었다. 심지어 요절한 부친에 대한 사모의 정을 표현하는 것도 즉위 후에야 비로소 가능했다. 세심대 놀이는 이와 같이 비극적인 정조의 개인사를 바탕으로 한다.

세심대는 필운대(弼雲臺)와 서로 마주 보이는 곳으로 정조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장소였다. 영조 11년(1735년)에 사도세자가 태어나자 여러 대신들이 필운대에 모여 기뻐했는데 이때 박문수(朴文秀, 1691년~1756년)가 지은 시가 전해지며 정조도 이 일을 자주 언급하곤 했다. 더구나 이 인근에는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映嬪李氏)의 신주를 봉안한 선희궁과 사도세자 즉 장조(莊祖)의 사당인 경모궁이 있다. 따라서 정조는 왕이 친히 지내는 봄철의 작헌례(酌獻禮)를 지낸 후 세심대를 자주 찾았다. 「일득록」에는 정조가 이곳의 장소성에 대해 설명한 기록이 있는데, “세심대를 설치한 것은 내가 나름대로 깊은 뜻이 있어서이다. 작년 묘당(廟堂)을 세울 때 처음에는 여기에 터를 봐 두었는데, 마침 다른 의견이 있어 다른 곳으로 옮겨 정했으니 바로 지금의 경모궁이다. 지금 살펴보면, 국세(局勢)가 천연적으로 이루어지고 밝게 특 트여 길하고 복 받은 터임

을 알 수 있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내가 세심대에 관하여 처음에 헤아리고 의논한 것이 있었던 까닭으로 차마 등한히 여겨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 가서 내가 땅을 따라 사모함을 일으키는 뜻을 부치기로 기약하였다.”¹⁶⁾라고 하였다.

상화조어연과 세심대 놀이의 공통점은 정례화한 궁원 행사라는 점이다. 두 행사의 차이점은, 세심대 놀이는 상화조어연과 같은 규례가 없었으며 참석자도 정해지지 않았다. 세심대 놀이에는 노신과 그 자제, 규장각의 각신을 비롯해 무신들도 참여하였다.

2) 개최한 해와 행사 개요

첫 번째 세심대 놀이는 정조 15년(1791) 3월 17일에 있었다. 『정조실록』의 이날 기록에는, “상이 근신들과 함께 세심대에 올라 잠시 쉬면서 술과 음식을 내렸다. 상이 오언근체시 1수를 짓고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는 시를 짓도록 하였다. 이어 좌우의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 내가 선희궁을 배알할 때마다 늘 이 누대에 오르는데, 이는 아버지를 여윈 나의 애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이다.”라고 했다. 『일성록』의 같은 날 기사에도 정조는 “눈앞이 광활하고 꽃이 난만하여 참으로 장관이다.”라고 한 기록과 이날 지은 시가 실려 있다. 세심대갱재축(洗心臺賡載軸)¹⁷⁾ 간본에 의하면 “해마다 한 번씩 이곳에 오는 것을 정례로 삼고, 그때마다 시를 지어 이 일을 기록하였다.”¹⁸⁾라고 하며 이날 갱재한 사람은 16명이다.

두 번째 세심대 놀이는 정조 16년(1792년) 3월 20일에 있었다. 『정조실록』의 이날 기록에 정조는, “...: 오늘은 날씨가 맑아 매우 화창하니 마땅히 경들과 더불어 다시 전날 놀던 곳을 찾아보려다.”¹⁹⁾라고 했다. 『일성록』에는 이날의 행사를 보다 상세히 기록하였는데, 옥류천을 거쳐 세심대를 지나 상화대(賞花臺)에 장막을 치고 어좌를 설치했다. 여기서 필운대와 종남산을 조망하고 왕이 시를 짓고 신하들이 화답하였다. 이날 갱재한 사람은 25명이다. 신하들은 왕에게 이날의 은혜와 영광을 기념하기 위해 시축(試軸)을 만들어 하나씩 나누어 줄 것을 청했고 왕은 나중에 권축(卷軸)으로 꾸며서 화답시를 지은 신하들에게 내려 줄 것을 약속했다.²⁰⁾

세 번째 세심대 놀이는 정조 18년(1794년) 3월 13일에 있었다. 『정조실록』의 이날 기사에는 “옥상궁, 연호궁, 선희궁을 참배하고 세심대에 올라 시신(侍臣)들에게 밥을 내려주고 여러 신하들과 활쏘기를 하였다. 선희궁의 소원(小園)에 도로와서 화전(花煎) 놀이를 하면서 상이 칠언 절구로 시를 짓고는 군신들에게 화답하여 바치도록 하였다.”²¹⁾라고 했다. 『일성록』의 같은 날 기록에도, 소포(小布)를 설치하고 활쏘기를 하고, 궁원으로 돌아와 화고(花糕)를 구워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왕이 시를 짓고 신하들에게 화답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날 갱재한 사람은 30명이다.

네 번째 세심대 놀이는 정조 19년(1795년) 3월 7일에 있었다. 이날도 정조는 “이 세심대의 터는 곧 선희궁의 담장 밖이므로 일찍이 경모궁을 처음 세울 때에 땅을 골라 터를 열었고 정초(定礎)할 때에는 내가 선희궁에 전배할 때마다 그 터를 두루 둘러보면서 번번이 한참 동안 흐느끼곤 하였다. 근년 이래로 매년 이곳에 행차할 때마다 번번이 이 세심대에 한번 오른 것도 그리움에 의탁하여 옛일을 기념하려는 뜻에서 나온 일이다. 내가 어찌 한가하게 놀려고 그랬겠는가?”²²⁾라고 그 장소가 갖는 의미와 세심대 놀이의 의의를 재차 설명하고 있다. 『정조실록』에 의하면, 이날도 꽃구경과 활쏘기를 하였으며 왕과 신하들이 시를 지었다. 이날 갱재한 사람은 55명이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 해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해였으므로 더욱 성대한 행사로 치러졌다. 『일성록』에 의하면 이날 행사에는 세심대 밑의 동내(洞內)에 사는 신하들과 유생들도 초대되었다. 정오가 되자 화고(花糕)를 부쳐 여러 신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동내의 여러 사람들에게도 술과 음식을 내렸고 아이들에게 종이와 붓과 먹을 나누어 주었으며 구경나온 사람들에게도 떡과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3) 참석자의 기록

정약용은 정조 19년(1795년) 3월 7일에 있었던 행사에 참석하였는데 이날 지은 ‘삼가 어제 세심대상화시를 화답하다(奉和聖製洗心臺賞花)’라는 시가 『다산시문집』 제2권에 실려 있다. 또 ‘차찬모지명 집중본’에는 “... 술이 한 순배 돈 뒤에 주상이 시를 읊고 여러 학사로 하여금 갱화(賡和)하게 하니, 내시(內侍)가 채전(彩箋) 1축(軸)을 올렸다. 주상이 용에게 어막(御幕) 안으로 들어와서 시를 쓰도록 명하였다. 용이 탐전(榻前)에서 붓을 뽑으니 주상은 지세가 고르지 못하다 하여 어탑(御榻) 위에 시축(詩軸)을 올려놓고 쓰도록 명하였다. 용이 머리를 조아리며 감히 나아가지 못하니, 주상이 여러 번 나오도록 명하였다. 용이 부득이 명대로 어탑에 나아가 붓을 휘둘러 써내려 가니, 주상이 가까이 다가와서 보고 잘 쓴다고 칭찬하였다.”²³⁾라고 기록하였다.

3. 폭포 구경(觀瀑)

1) 폭포 구경의 의의와 성격

‘상화조어연’과 ‘세심대 놀이’가 봄철의 행사인데 반해 ‘폭포 구경’은 것은 여름철에 궁원을 이용한 사례이다. 이 ‘폭포 구경’이란 여름날 많은 비가 내린 직후에 맑은 물이 시원하게 흘러 넘치는 옥류천을 감상한 것을 말한다. 강세황의 「호가유금원기」에도 정조가 신하들에게 옥류천을 안내하면서 “만약 비 온 뒤에 왔더라면 물이 제법 불어서 매우 볼만했을 텐데 지금은 물줄기가 줄어서 약하니 유감시오.”[1]라고 설명한 내용이 있다. 이를 볼 때 정조는 갈수기와 우기의 유량 변화에 따라 옥류

천의 경관이 변화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며 이미 여러 차례 폭포 구경을 했을 것으로 짐작 된다. '폭포 구경'은 옥류천 일대의 일상적인 경관이 아니라, 많은 비가 내린 직후 즉 자연현상에 따라 형성되는 임시적인 경관을 즐겼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Figure 1은 많은 비가 내린 후에 옥류천 주변에 물이 흘러넘치는 모습을 가상하여 작성한 그래픽이다.

2) 개최한 해와 행사 개요

폭포 구경에 대한 기록은 『홍재전서』 제182권에 있는데, "신축년(정조 5년, 1781년) 여름에 내가 각신, 승지, 사관과 함께 폭포를 구경하고 소요정에서 거문고 연주를 들으면서 벽상(壁上)의 시운을 차운하였다. 갱재한 이는 5명이다."²⁴⁾라고 했다. 실록의 정조 5년(1781년) 윤 5월 23일에 '비가 계속 내리자 기청제(祈晴祭)를 지내게 하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그 즈음에 장마가 한 달이 넘도록 계속되다 26일에야 날씨가 개었다고 한다. 정조가 소요정에서 옥류천의 폭포를 구경한 것은 이 무렵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전술한 바와 같이 강세황 등에게 후원을 안내한 것은 이로부터 약 3개월 후의 일이다.

정조는 "나는 음악을 즐기지는 않지만 청아한 거문고 소리 만큼은 좋아한다. ... 그래서 옆에 항상 거문고 1장(張)을 놓아 둔다."²⁵⁾라고 했다. 또 정조는 일찍이 세손시절에 지은 「소요정기」에는, "... 정자가 동산(苑)의 한가운데 있어 동산의 좋은 경치가 모두 이 정자에 모여어, ... 사람으로 하여금 세속을 벗어난 맑고 깨끗한 생각을 갖게 하니, 땅의 소요할 만한 경치가 바로 그러한 것이다. ..."²⁶⁾라고 했다. 소요정의 승경에 더해 맑은 물이 폭포를 이뤄 소리를 내며 흐르고 평소 즐기는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시를 지은 운치 있는 자리였다. 이날 정조가 지은 시는 다음과 같다.

‘소요정(逍遙亭)에 이르러 폭포를 구경하고, 거문고 소리를 들으며 벽상(壁上)의 시운에 차하다’²⁷⁾

숲 끝의 튀는 물방울은 명금에 뿌리는데 / 林端飛沫濺鳴琴
울창한 숲 어둑한 속에 작은 누각 그윽하여라 / 空翠濛濛小閣深
우연히 제군과 이 자리를 함께했으니 / 偶與諸君同此席
도는 바로 무심한 가운데 유심한 것이로다 / 道是無心却有心

정조 9년(1785년) 여름에 폭포를 구경한 기록도 『홍재전서』 제182권에 있다. 이에 의하면 "여름에 비가 견히고 날이 맑았으므로, 신하들과 옥류천에 가서 폭포를 구경하며 시를 지었다. 이 시에 갱재한 이는 6명이다. 같은 해 6월에 단풍정에 임어하여 무신을 시강하고, 강석에 참여한 신하들과 다시 옥류천에 가서 폭포를 구경하였는데, 이때 갱재한 이는 9명이다."²⁸⁾라고 한다. 이해 여름에 정조는 두 차례에 걸쳐 폭포 구경을 한 것이다. 『일성록』에 의하면 이해 5월 24일과 25일에 비가 내렸고 다시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또 4일부터 6일까지 비가 계

속되었다. 이때 강우량은 측우기 수심으로 5월 27일에 1치 3푼, 28일에 3치, 29일에 1치, 6월 1일에 1치 5푼, 4일에 1치 7푼, 5일에 2푼, 6일에 1치 7푼이었다. 이후 6월 7일부터 19일까지는 비가 오지 않았다. 정조가 이해에 첫 번째 폭포 구경을 한 것이 이 무렵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같은 해에 두 번째 폭포 구경은 정조 9년(1785년) 6월 15일에 있었다. 『정조실록』의 이날 기사는 '춘당대에서 선전관의 시강을 행하다.'이며, 『일성록』에는 '단풍정에 나아가 선전관의 시강을 행하고, 서울과 지방에서 올린 전최(殿最)를 개탁(開挾)하였다.'라는 기사가 있다. 이 두 기록에는 폭포를 구경했다는 언급은 없다. 이날 폭포 구경에 대한 정황도 『홍재전서』에 실린 정조의 시를 통해서 짐작해 볼 수 있다.

‘비 온 뒤에 옥류천(玉流川)에서 폭포를 구경하며 읊다’²⁹⁾
장맛비가 막 걸리고 저녁 햇살 고을 제 / 積雨初收晚日妍
높은 누각에 앉아서 샘물 소리를 듣노라니 / 坐來高閣聽新泉
샘물 소리가 마음과 더불어 온통 맑아라 / 泉聲渾與心俱淨
먼저 하난들이 자리에 이르길 형용할소냐 / 耐許纖塵到此筵

‘단풍정(丹楓亭)에 임어하여 무신(武臣)들에게 시강(試講)시키고, 인하여 경외(京外)의 전최(殿最)에 관한 문서를 뜯어 본 다음, 자리에 오른 여러 신하들과 함께 옥류천에 이르러 폭포를 구경하다’³⁰⁾

수많은 갈래로 맑은 샘물 흘러나오니 / 百道清泉出
무더운 구름이 감히 날지 못하네 / 蒸雲不敢飛
우연하게 작은 모임을 이루어 / 偶然成小集
서늘한 저녁 기운 나누어 돌아가누나 / 分與晚涼歸

4. 설중용호회(雪中龍虎會)

1) 행사의 의의와 성격

정조는 개인적으로도 '문무(文武)'를 겸비했거니와 국왕으로서도 '문(文)과 무(武)의 조화'는 국정의 주요 현안이었다. 정조는 "문(文)과 무(武)를 병용하는 것이 국운을 장구하게 하는 계책이다."³¹⁾라고 했으며, "문강(文講)·무강(武講)·문제(文製)·무사(武射)는 바로 수레의 바퀴와 새의 날개 같은 것이어서 한 쪽만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다. ..."³²⁾라고 했다. 정조는 자신의 정치적 이상을 안정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친위군영이 필요했다. 따라서 정조는 즉위 직후 규장각과 함께 장용위(壯勇衛)를 설치했다. 장용위는 1793년에 친위군영인 장용영(壯勇營)으로 편제를 확대하여 내영은 도성 중심에 두고 외영은 화성에 두었다. 정조는 문(文)은 규장각, 무(武)는 장용영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어 발전시키고자 하였고 이를 "문치규장 무설장용(文治奎章 武設壯勇)"으로 천명하였다[18].



Figure 1. Difference of Landscape at Oklyucheon(玉流川) and Soyojeong(逍遙亭) by Quantity of Water

이 두 기구는 정조의 입지를 다지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친위 조직이었다. 정조는 장용영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여 여기에 소속된 무신들은 국왕의 지우를 받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고 이들에 대한 정조의 총애와 대우는 규장각 학사에 필적하였다 [18].

앞서 살펴본 상화조어연은 오직 규장각의 각신을 위한 궁원의 연회였다. 세심대 놀이에는 무신도 참여했으나 역시 승정원 등 문신이 주가 되는 행사였다. 정조는 해마다 겨울철에 장용영을 비롯해 삼군문(三軍門)³³⁾의 각 대장들, 별군직(別軍職)³⁴⁾과 선전관(宣傳官)³⁵⁾ 등 무신들을 위한 궁원 행사를 열었다. 이 행사는 이들의 사강(射講)이나 시사(試射), 시강(試講) 등 행사의 '뒤풀이' 격으로 치러졌고 왕이 군사들에게 음식을 내려 위로하는 '호궐(犒饋)'의 형식을 따랐다. 『정조실록』과 『일성록』 등의 문헌에는 이 행사를 지칭하는 별도의 명칭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다만 장용영의 내영과 외영의 별칭이 용대장(龍大將)과 호대장(虎大將)이었으며³⁶⁾ 정조 16년(1792)에 있었던 이 행사에서 왕과 신하들이 지은 시를 모은 갱재축의 제목이 '설중용호회연축(雪中龍虎會聯韻軸)'이다.³⁷⁾ 따라서 편 의상 본 연구에서는 이 행사를 '설중용호회'로 칭한다.

『정조실록』에 의하면 정조는 매년 정월 초에 군사들에게 음식을 내려 위로하는 '호궐'을 거행하였다. 이를 '연두(年頭)의 호궐' 혹은 '세수(歲首)의 호궐'라 하며 이 행사는 대궐 안에 근무하는 모든 장졸(將卒)들을 위로하는 자리였다. 이와 달리 '설중용호회'는 무반요직(武班要職)에 있는 무관들을 위한 행사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이 행사의 유래와 성격은 『홍재전서』 제6권에 실린 글에

잘 나타나 있는데, "이날 춘당대에 임어하여 문신에게는 제술(製述)을, 무신에게는 진법(陣法)을 시험하여 고과(考課)해서 등차(等次)를 획정하였다. 이때에 겨울 기후가 몹시 춥고 눈발이 약간 날리므로, 응시한 무신에게 명하여 창(槍)을 잡고 앞에서 썰매를 급게 하였다. 대체로 열조(列朝)에서 매양 선달마다 반드시 한 번씩 이 일을 거행하였으므로, 지금도 이것을 상례로 삼고 있다."라고 했다.³⁸⁾ 또 『일성록』에는 "... 이어서 선전관에게 꿩구이를 내렸다. 땅에 숯불을 피우게 하고 한 사람에게 썰매 한 마리와 쇠꼬치 하나씩을 주고 각자 꼬치에 썰매를 꿰어서 구워 먹게 하였다. 또 술을 내리고 이병모 등에게 이르기, '선전관을 호궐하는 데 꿩구이를 쓰는 것은 효묘(孝廟) 때부터 시작되었다. 성조(聖祖)께서는 매년 연말이면 반드시 이런 행사를 하셨었다.' ..."³⁹⁾라고 했다. 이에 의하면 겨울철에 궁원 뜰에 숯불을 피우고 썰매를 내려 무신들을 위로하는 것은 북벌을 추진했던 효종(孝宗) 때 시작한 것을 알 수 있다. 영조는 물론 정조도 이를 상례로 삼아 정례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각자 꼬치에 썰매를 꿰어서 숯불에 구워 먹게 함으로써 무신들에게 호연한 기상과 야전성(野戰性)을 고무한 것으로 보인다.

2) 개최한 해와 행사 개요

정조 2년(1778년) 11월 3일에 춘당대에서 내시사(內試射)를 하였고 참여한 사람들에게 술과 안주를 내렸다.⁴⁰⁾ 이날은 호위군관(扈衛軍官) 및 금군(禁軍)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조 5년(1781년) 12월 21일에 정조는 춘당대에서 선전관과 선천금군을 불러 시강한 후, "금년이 저물었는데 설경(雪景)이

아름다우니 삼군문으로 하여금 장전(仗前)에서 꿩을 곱게 하고 연신(筵臣)과 위사(衛士)에게 찬물(饌物)을 나누어 주어서 고락을 함께 한다는 뜻을 붙이도록 하라.”하였다.⁴¹⁾ 이 기록에 의하면 뜰에 숯불을 피우고 참석한 시위무사(侍衛武士)와 금군, 무예교졸(武藝校卒), 내취분대(內吹分隊)에 이르기까지 열(列)을 지어 앉아 꿩을 스스로 구워 먹게 하였으며, 술도 하사하였다. 또 참석한 여러 신하들에게는 큰 소반에 술과 고기를 내렸다. 또 이날은 호쾌하는 예(例)에 의거해 음악을 연주하여 음식을 권하였다고 한다. 이날은 눈꽃이 뜰에 가득 피어 경치가 아름다웠으며, 삼군문과 병조가 각각 50마리의 생치(生雉)를 마련해 숯불에 구워서 상하가 고락(苦樂)을 함께 나누었다고 기록했다.

정조 9년(1785년) 11월 18일에도 춘당대에서 무신들을 시강과 시사를 하였다. 결과에 따라 시상한 후 정조가 말하기를 “늘 날씨가 추운 때에는 번번이 꿩을 구워 별군직과 선전관에게 호쾌한 것은 … 오늘 눈이 내렸고 마침 시사를 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미 내주(內廚)에 명하여 꿩과 술을 조금 갖추게 하였다. 시사에 응한 장사(將士)들 또한 어찌 그냥 헤쳐 보낼 수 있겠는가? 경(卿) 등은 각자 영문(營門)에서 술과 안주를 갖추어 오라.”⁴²⁾ 고 하였다. 이어 장전(帳前)에서 꿩을 곱고 금위대장에서부터 별군직 선전관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첨창(尖鎗)을 갖고 구운 고기를 꺾어서 혹은 잘라서 먹기도 하고 혹은 술을 따라서 마시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이어 각영(各營)의 장사(將士)들을 대전(臺前)으로 불러 와서 각 영의 술과 안주를 각각 먹으라 명하고 말하기를, “이는 한 병의 술을 하수(河水)에 던진 격(格)이니 어찌 두루 미칠 수 있겠는가? 이는 곧 사졸(士卒)들과 감고(甘苦)를 같이 하는 뜻이니 너희들은 이 뜻을 알라.”하였다.

정조 14년(1790년) 10월 27일에도 춘당대에서 무신과 문신들의 활쏘기를 시험하였다. 문신들에게 ‘용문에서 눈을 구경한다(龍門賞雪)’를 제목으로 시를 짓게 하였다. 또 불에 구운 고기와 큰 술잔을 내려 저마다 모두 취하게 마시고 배불리 먹어 태평시대의 성대함을 즐겼다고 한다.⁴³⁾ 『일성록』의 같은 날 기록에도, 특별히 화로와 노구술을 준비하여 문신과 무신들이 차례로 앉아 시식(侍食)하였고 동자악(童子樂)을 연주했다고 한다. 또 술을 잘하는 자에게는 큰 술잔에 한 잔씩 따라 취하도록 마시게 하였으며, 뜰에 숯불을 피우고 장용영의 장관 및 이졸(吏卒), 내각의 이례, 무예청(武藝廳)에게 고기를 주어 모두 들 고르게 먹었다고 한다.

정조 15년(1791) 12월 20일에도 춘당대에서 선전관의 사강(射講)을 한 후 꿩을 구워 여러 신하들에게 먹였다.⁴⁴⁾ 『일성록』의 같은 날 기록에도 훈련대장, 금위대장, 어영대장과 선전관에게는 꿩을 내렸고 입시한 여러 신하들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한다.

이듬해인 정조 16년(1792년) 11월 26일 『일성록』의 기록

에는, 초계문신과 선전관을 글짓기와 활쏘기를 시험한 후 선전관에게 땅에 숯불을 피우게 하고 한 사람에게 꿩 한 마리와 쇠꼬치 하나씩을 주고 각자 꼬치에 꿩을 꿴어서 구워 먹게 하였다. 또 난로를 피우고 각신, 승지, 사관, 초계문신, 본영(本營)의 장관(將官)과 별군직에게 음식을 내렸다. 또 본영의 장교와 군병 및 내각의 이속(吏屬)들에게 골고루 술과 고기를 내렸다. 정조가 “문신과 무신이 모두 법대로 활을 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술을 마시네(文武皆吾穀 君臣共一庖)”⁴⁵⁾ 라고 첫 구절을 짓고 신하들이 화답하는 시를 지었다. 『홍재전서』에는 이날 강재한 사람이 28명이라고 하며 이 시들을 모아 ‘설중용호회연운축(雪中龍虎會聯韻軸)’⁴⁶⁾을 만들었다.

정조 21년(1797년) 11월 18일에도 춘당대에서 각신, 승지, 사관, 장신(將臣)들이 짝을 지어 활쏘기를 하였다. 이후에 장막에 나아가 고기를 삶고 꿩을 구워 제신(諸臣)들에게 나누어 먹였다⁴⁷⁾는 기록이 있다.

이 행사에 대해 「정조대왕 행장(行狀)」에는 “… 겨울이 되어 눈이 내리면 꿩고기 곱고 탁주를 두루 하사하여 장사들을 먹이면서 소무(昭武)의 악(樂)으로 여흥을 돋우기도 했는데 그건 바로 영릉(寧陵)의 철장(鐵杖) 목마(木馬)⁴⁸⁾와도 같은 뜻이었다. …”⁴⁹⁾라고 했다.

5. 난로회(煖爐會)

1) 난로회의 의의와 성격

난로회는 원래 중국의 풍속으로 음력 10월 초하룻날 난롯가에 둘러앉아 주연(酒宴)의 모임을 말한다. 『동국세시기』에는 서을 풍속에 화로에 숯불을 피워 번철(燔鐵)을 올려놓고 쇠고기에 갖은 양념을 하여 구우면서 둘러앉아 먹는 것을 ‘난로회’라 한다고 했다.⁵⁰⁾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년~1805년)이 쓴 ‘만휴당기’에도 눈 내리는 날 열린 ‘난로회’의 모습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임을 난회(煖會) 혹은 철립위(鐵笠圍)라고도 한다고 했다.⁵¹⁾ 난로회는 앞서의 설중용호회와 달리 규장각, 홍문관, 승정원 등의 문신들을 위한 자리였다.

2) 개최한 해와 행사 개요

정조 재위기간에 난로회에 관한 기록은 많지 않다. 실내에서 행해지고 소규모 인원만이 참석했을 것이므로 일일이 기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홍재전서』 제7권의 시 ‘규장각, 은대(銀臺), 옥서(玉署)에 음식을 내리고 연구를 짓다’라는 시에 정조는 “궁궐의 눈빛이 활짝 핀 꽃처럼 빛나는 가운데 어좌(御座)의 금련축(金蓮燭)을 나누어 주는 이때를 당해서, 난로회의 고사를 모방하여 …”⁵²⁾라고 하였다. 이날 정조는 그동안 많은 책을 편찬하고 간행하느라 수고한 규장각과 홍문관, 승정원의 여러 신하들에게 난로회의 고사를 따라 술과 안주를 내려 위무한 것이다.

『홍재전서』에 실린 「매각쟁재축(梅閣賡載軸)」 사본에는, “신축년(정조 5년, 1781년) 겨울에 내가 각신, 승지, 사관과 함께 매각(梅閣)에서 난로회를 열었다. 매(梅) 자를 뽑아 칠언절구를 짓고, 꽃이 핀 뒤에 다시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쟁재한 이는 5명이다. 꽃이 피자 처음의 약속대로 불러서 다시 꽃나무 아래에서 연회를 열고 처음처럼 쟁재하였다.”⁵³⁾라고 했다. 이날 정조가 지은 시는 『홍재전서』 제5권에 실려 있다. 또 정조 6년(1782) 10월 3일에 “춘당대에 나아가 초계문신의 과강(課講)과 선전관의 시강(試講)을 행하였으며 ‘난로회’로 칠언사운율(七言四韻律)의 제목을 삼았다.”⁵⁴⁾라는 기록도 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볼 때, 정조는 세간에 널리 퍼져있는 난로회라는 유락 행위를 잘 알고 있었으며 실제로 이런 모임을 갖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의 기록 외에는 더 이상의 사례를 찾을 수 없다. Figure 2는 야외에서 숯불을 피우고 번철에 고기를 굽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그린 그림으로 그 당시 난로회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Figure 2. Seong Hyup, 'Outdoor Feast(野宴)', 18th century, Colors on paper, 28.3×20.8cm, National Museum of Korea[20].

6. 활쏘기

1) 궁중 의례로서의 활쏘기

궁중에서의 활쏘기는 엄격한 형식과 예를 갖춘 의례(儀禮) 중 하나였다. 예를 들어 ‘대사례(大射禮)’는 임금이 성균관에 나아가 석전례(釋奠禮)를 지낸 뒤 신하들과 함께 활쏘기를 하는 의식인데 임진왜란 이후 폐지되었다가 영조가 시의에 맞게 의문(儀文)을 정비하여 부활시켰다[21]. Figure 3은 영조 19년(1743년)에 있었던 대사례를 그린 화권(畫卷) 중 왕이 활을 쏘는 모습을 그린 「어사도」이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의례로서의

활쏘기’의 엄격한 형식을 살펴 볼 수 있다.

정조도 역시 규장각으로 하여금 주(周)대의 제도를 고증하여 제후가 연침에서 활쏘기를 하는 연사례(燕射禮)의 의식과 절차를 복원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실제로 정조 3년(1779년) 9월 25일과 7년(1783년) 12월 10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연사례를 열었다. 이 중 정조 7년의 연사례에서는 왕이 지은 시에 13명의 신하가 쟁재하였고 이들을 시축으로 만든 연사쟁재축(燕射賡載軸)이 있다.⁵⁵⁾ 연사(燕射)의 문자적 의미는 ‘활쏘기 하는 잔치’이며 활쏘기 후에는 왕과 신하들이 연음(燕飲)하면서 함께 즐겼다. 이런 행사는 규모가 크고 엄격한 의례를 따른다는 점에서 오늘날 유락의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2) 유락 활동으로서의 활쏘기

주(周)대에 확립된 예(禮), 악(樂), 사(射), 어(御), 서(書), 수(數)의 육예(六藝)는 군자가 두루 갖추어야 할 덕목이었다. 이중에 활쏘기에 대해서 『논어』 「팔일(八佾)」편에 “군자는 다투는 일이 없으나, 꼭 하나 있다면 그것은 활쏘기다! 그러나 절하고 사양하며 활 쏘는 자리에 오르고, 내려와서는 별주를 마시니 그 다투는 모습도 군자답다(君子無所爭 必也射乎揖讓而升 下而飲 其爭也君子).”[22]고 하였다. 따라서 활쏘기는 선비가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으로 단순한 유희가 아닌 예의 실천이자 자기수양을 위한 방편 중 하나였다.

정조의 활 솜씨는 선조인 태조(太祖)에 비견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정조대왕 행장」에도, “활 쏘는 것이라면 하늘에서 타고난 재주였다. 그러나 50발을 쏠 경우에 항상 그 하나는 남겨두고 있었는데 모든 것이 가득 차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⁵⁶⁾라고 하였다. 정조는 활쏘기에 몰두하는 이유에 대해, “사예(射藝)는 곧 우리 집안의 법도이니, 다만 내가 천성으로 활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⁵⁷⁾라고 했다. 또 정조는 “활쏘기의 묘미는 정신을 집중하는 데 있다.”⁵⁸⁾라고 하며, 활쏘기는 육예 중 하나로 자기를 바로잡기 위해 마음(心)을 다스리는 공부라는 점을 강조하였다.⁵⁹⁾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화조어연, 세심대 놀이 등에 시 짓기와 활쏘기가 빠지지 않았다. 이렇듯 큰 행사에 수반된 활쏘기뿐 아니라 정조는 신하들과 빈번하게 궁원에서 활쏘기를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정조 4년(1780년) 5월 22일에 교리(校理) 강침(姜忱)이, 왕이 후원에서 자주 사예(射藝)를 겨루는 폐단에 대해 상소하기도 했다. 이에 의하면 “… 출진 댈건 물론하고 바람이나 안개를 피하지 않으며 자주 옥지(玉趾)를 힘들여 친히 확포(覆圃)에 남시는데, 미천한 무신과 쇠뇌를 당기는 군졸까지도 그 사이에 끼고 분수에 맞지 않는 자급(資級)과 공로가 없는 상이 또 따라서 나가니…”⁶⁰⁾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기록을 볼 때 정조는 날씨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활쏘기를 즐겼고 참여하는 사람의 직위도 다양했으며 활쏘기 후에는 후한 상을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실록』 등 사서에는 왕이 공적으로 '시사(試射)⁶¹⁾를 주관한 기록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것에 비해 왕의 사적인 유락 활동으로 활쏘기를 한 기록은 많지 않다. 『정조실록』에 의하면, 정조 16년(1792년) 3월 18일, 춘당대에 나아가 각신(閣臣)과 승지와 사관 등과 활쏘기를 한 후 참석자들에게 과일을 하사하여 먹게 했다고 한다. 또 같은 해 4월 8일에 연등절을 맞아 활쏘기를 하였다. 정조 17년(1793년) 2월 28일 여러 신료들과 활쏘기를 한 후 술과 음식을 내리고 내원의 여러 경치를 두루 구경하게 했다고 한다. 『홍재전서』 제182권에 실린 목극명경재축(木屐銘慶載軸) 사본에, 정조 20년(1796년) 봄에 내원에서 활을 쏘았는데 많은 점수가 나왔으며 왕이 각신(閣臣)들에게 고풍(古風)을 바치게 하고, 이어서 각자에게 받고 싶은 물건을 물어서 하사했다고 한다. 이렇듯 정조는 단순히 활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참여한 신하들에게 과일이나 술과 음식, 물품 등을 하사하거나 내원의 경치를 구경하게 한 점이 특기할 만하다.

3) 참석자의 기록

이덕무(李德懋, 1741년~1793년)는 정조 3년(1779년)에 9월에 있었던 연사례에 참석하였다. 그가 이날 지은 '연사례의 노래'라는 시가 『청장관전서』 [23]에 실려 있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⁶²⁾ 이에 의하면 이날 활쏘기 후 왕이 음식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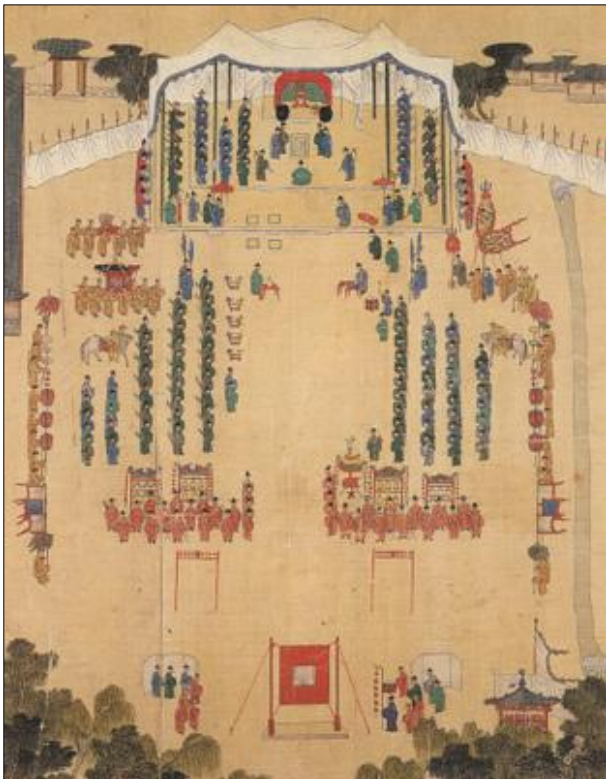


Figure 3. 'Picture of King's Archery(御射圖)」 in 『Album of Big Banquet of Archery(大射禮圖)』, dated 1743, Colors on silk, 60.0×28.2cm, Korea University Museum[24].

내렸고 시 짓기, 연음(燕飲) 등이 있었다.

또 정약용은 '홍 절도사(洪 節度使)에게 임금이 하사한 각궁(角弓)의 기(記)'를 썼는데, 여기에는 그의 장인인 홍화보(洪和輔)가 정조 앞에서 열 발의 화살을 쏘아 하나도 맞지 못하자 정조는 활 쏘는 솜씨가 문제가 아니라 활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자신의 활을 하사했다고 한다. 후에 홍화보는 이 활을 사위인 정약용에게 주었는데, "... 나는 규장각에 소속이 되어 내원에서 활쏘기를 시험할 때마다 늘 맞추지 못하여 벌을 받았다. ... 내가 이 활을 얻은 뒤로는 활쏘기 할 때마다 화살 몇 개씩을 맞추어, 전후에 걸쳐 받은 상이 많았다."⁶³⁾라고 했다. 이 기록 역시 정조가 궁원에서 수시로 활쏘기를 즐겼다는 것을 뒷받침 한다.

7. 기타

앞서 살펴본 궁원에서 유락을 즐긴 사례들은 모두 정조와 신하들이 함께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실록』과 『일성록』 등 편년체 사서에는 정조가 개인적으로 궁원에서 유락을 즐긴 것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당대의 관례나 사관의 입장에서는 왕의 사적인 일상의 여가를 기록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홍재전서』의 『일득록』에 정조의 어록인 '훈어'에는 정조가 궁원을 이용하며 느낀 소회를 기록한 내용들이 있다. 이를 통해 한 인간으로서 정조가 궁원을 대한 태도를 일부나마 짐작할 수 있다.

정조 13년(1789년)에 김재찬(金載贊)이 기록하기를, "상이 작은 수레를 타고 6, 7명의 시자와 함께 복원 깊숙한 곳으로 가 작은 정자 위에 올랐는데, 때마침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돌 틈을 흐르는 물소리가 들을 만하였으며, 꽃과 소나무가 어우러져 그늘진 가운데 노니는 새들만이 보였다. 상이 이를 둘러보고 기뻐하며 하교하기를, '마음에 맞는 경치 좋은 곳을 얻어 세속의 일이 닿지 않게 하여 잡다한 생각을 말끔히 씻어 버리고, 방 하나를 깨끗이 정돈하여 자유로이 생각하며 마음 내키는 대로 경사(經史) 등의 서적을 읽는다면 참으로 즐거움의 하나일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십 수 년 간 번잡한 사무만 가득 쌓여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하였다."⁶⁴⁾라고 했다. 여기서 지칭한 '복원 깊숙한 곳'이란 옥류천 주변을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또 이 날도 비가 내린 후라 물이 폭포를 이루어 소리를 내며 흘렀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의 한가함과 독서를 즐기고 싶은 마음과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과의 괴리를 후원에서 달랬던 것으로 보인다.

정조 21년(1797년)에 김재찬의 기록에, "춘당대에 나아가는데, 마침 봄비가 처음 내려 못물이 새로 불고 오리와 갈매기와 비오리가 물 위에 떠서 푸드덕푸드덕 마주 보며 씻고 있었다. 연신(筵筵)을 돌아보고 이르기를, '재때로다. 봄기운이 한창 생겨날 때에 저들이 스스로 그 기운을 얻어서 각각 그 즐거움을

즐기는 것이다. 사람이 만약 득과 실이 앞에 있고 기름과 불이 교차하는 가운데 한 조각 좋은 전지(田地)가 다른 사람에 의해 망가져 남은 것이 없다면, 비록 이 즐거움을 즐기고자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 하였다.”⁶⁵⁾ 라고 했다. 또 정조 21년(1797년) 서용보(徐龍輔)의 기록에는, “동산의 꽃과 섬돌의 풀, 숲 속의 새와 못 속의 물고기를 도를 모르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비록 완상에 빠져 본심을 상실한다고 말하더라도 괜찮으나, 도를 아는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보다 더 즐거운 것이 없으니, 본것은 같지만 그것을 보는 사람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⁶⁶⁾ 라고 하였다. 정조는 정확 중 주역에 최고의 지위를 부여했으며 주역은 정조를 읽는 키워드의 하나라고 했다[25]. 정조는 단순히 궁원의 아름다움 즉 겉모습을 즐긴 것이 아니라 여기의 계절 변화와 못 생명체들이 발산하는 생동감을 감상하며 우주만물의 생성 원리와 변화의 질서 등 주역의 의미를 일깨우고 있다.

8. 종합

정조는 부친의 요절 등 비극적 상황을 겪었고 심한 정치적 갈등 속에 즉위하였다. 즉위 후에는 이러한 부조리를 타파하기 위해 왕권 강화와 개혁을 추진했으며 개인적인 비원(悲願)도 이뤄야 했다. 노론과 소론, 남인 등 당파에 더해 시파와 벽파의 갈등 속에서 정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료들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 따라서 정조는 자신과 신료들의 관계를 ‘물과 물고기’에 비유하여 규장각 입구의 문을 어수문(魚水門)이라 할 정도로 측근 신료들과 정서적 일체감을 강조하였다[26]. 정조의 말에 의하면, “군신(君臣) 관계이면서도 가정의 부자(父子)와 같은 의리를 견해야만 정과 뜻이 서로 통할 수 있는 법이다.”⁶⁷⁾ 라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정조는 상화조어연, 세심대 놀이, 설중용호회 등 군신동락(君臣同樂)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자리에 참여

했던 정약용은 “우리 성상(聖上)께서는 뜻이 본디 공검(恭儉)함 때문에 말을 달려 사냥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며, 성색(聲色)과 진기한 노리개를 가까이하지 않으며, 환관(宦官)과 궁첩(宮妾)이라고 봐 주지 않는다. 다만 진신대부(摺紳大夫)들 중에 문학(文學)과 경술(經術)이 있는 자를 좋아하여 그들과 함께 즐긴다. 비록 온갖 악기를 베풀어 놓고 노닌 적은 없으나, 음식을 내려 주고 즐거운 낫빛으로 대해 주어서 그 친근함이 마치 한 집안의 부자 사이와 같았으며, 엄하고 강한 위풍을 짓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러 신하들이 각기 말하고자 하는 것을 숨김없이 모두 아뢰니, 혹 백성들의 고통과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모두 환하게 들을 수 있으며, 경(經)을 말하고 시(詩)를 이야기하는 자도 의구(疑懼)하는 마음이 없어 그 질정하고 변석하는 데에 성실을 다할 수 있었다. 아, 이것이 이른바 군자의 도가 생장하고 소인의 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⁶⁸⁾ 라고 했다.

이러한 군신동락의 자리에는 시 짓기와 활쏘기가 빠지지 않았으며 그 결과에 따라 시상도 했다. 상화조어연에서는 ‘별주마시기’, 부용지 가운데 섬으로 ‘귀양 보내기’ 등과 같은 오락(game)적 요소도 있었다. 또 행사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 거문고를 비롯해 음악과 술도 곁들여졌다. 특히 정조는 술자리에서 술잔 돌리는 일은 주관하는 상정(觴政)과 술을 마시도록 권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을 별도로 지정하기도 했다. 이런 술자리에 참석한 이들을 모두 취하게 하거나 심지어 어전에 쓰러져있던 사람도 있다. 이러한 일에 대해 정조는 “술로 취하게 하고 그 덕을 살펴본다고 옛사람이 말하지 않았던가. 오늘 의 일은 덕을 살펴보는 모임이다. 그대들은 모름지기 취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각자 양껏 마시되 ….”⁶⁹⁾ 라고도 했다. 정조는 이렇듯 군신간의 긴밀한 관계를 강조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조 재위연간에 궁원과 관련 사항들을 연보로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hronological List of Related Matters of Jeongjo and the Palace Garden

Date		Matter	Source
King Yeongjo(英祖) 28 th yr.(1752)	Sept. 22.	born in Geongchunjeon(景春殿) in Changgyeonggung(昌慶宮)	
35 th yr.(1759)	intercalary June 22.	7 years old, appointed as the grandson of a King(世孫)	
36 th yr.(1760)		lived in Jonhyengak(尊賢閣) in Gyeonghuigung(慶熙宮) from 9 years old (1760) to the enthronement year(1776)	
39 th yr.(1762)	intercalary May 21.	11 years old, underwent the tragic death of his father, Sadoseja(思悼世子)	
41 th yr.(1765)		14 years old, appointed as the crown prince(東宮)	
42 th yr.(1766)	unknown	wrote 「Soyojeonggi(逍遙亭記)」	
49 th yr.(1773)	— " —	wrote 「Yeongchuijeonggi(映翠亭記)」	
50 th yr.(1774)	— " —	wrote 「Gyeonghuigungji(慶熙宮志)」	
	— " —	wrote 「Taehoseokgi(太湖石記)」	
King Jeonjo(正祖) enthronement yr.(1776)	March 10.	25 years old, acceded to the throne at Sungjeongmun(崇政門)	
	Sept. 25.	established Kyujanggak(奎章閣) and officials	1: the report of that day

Table 1. Continued

1 th yr.(1777)	Feb. 25.	wrote 「Songdangi(松壇記)」	2: the report of that day
	unknown	wrote 「Huiwoolui(喜雨樓志)」	3: Vol. 54, Jabjeo(雜著) 1
2 th yr.(1778)	Nov. 3.	bestowed the liquors and some eatables after discharged arrows at Chundangdae(春塘臺)	1: the report of that day
3 th yr.(1779)	early autumn	made Lee, Deok-moo(李德懋) etc. wrote 'Kyujangkak Palgoengsi(奎章閣八景詩)'	5: Vol. 20, 「Ajeongyugo(雅亭遺稿)」
	Sept. 25.	held the Yeonsarae(燕射禮) at Bulwunjeong(拂雲亭) in Chundangdae(春塘臺)	1: the report of that day 5: Vol. 20, 「Ajeongyugo(雅亭遺稿)」
5 th yr.(1781)	Feb. 13.	made the provisions of Kyujangkak(奎章閣) ordained that officials had a picnic of spring and autumn season to Yuha jeong(流霞亭)	1: the report of that day
	summer	took a view of the waterfall in the Rear Garden(後園), composed a poem with listening to music of the Geomungo	3: Vol. 182, Soyojeong gaengjaechuk(逍遙亭廢載軸) sabon
	Sept. 3.	The king himself guided Kang, Se-whang(姜世晃) etc. to the Rear Garden(後園)	6: 「Hogayugeumwongi(扈駕遊禁苑記)」
	Dec. 21.	held the Seoljungryonghohwe(雪中龍虎會) at Chundangdae(春塘臺)	1, 2: the report of that day
	winter	held the Brazier Feast(煖爐會) at Maegak(梅閣) following year, true to their's promise held a feast under the flowering tree	3: Vol. 182, Maegak gaengjaechuk(梅閣廢載軸) sabon
6 th yr.(1782)	Oct. 3.	composed a poem subject on the Brazier Feast(煖爐會) at Chundangdae(春塘臺)	2: the report of that day
7 th yr.(1783)	spring	took a view of the flowers at Okryucheon(玉流川) and composed a poem subject on flower(花). 7 members participated	3: Vol. 182, Okryucheon gaengjaechuk(玉流川廢載軸) sabon
	late in July	wrote 「Kongmukhabgi(恭默閣記)」	3: Vol. 14, gi(記)
	Dec. 10.	held the Yeonsarae(燕射禮) at Chundangdae(春塘臺)	1: the report of that day 3: Vol. 182, Yeonsa gaengjaechuk(燕射廢載軸) ganbon
9 th yr.(1785)	summer	took a view of the waterfall at Okryucheon(玉流川) and composed a poem with the vassals	3: Vol. 182, Naewonguanpok gaengjaechuk(內苑觀瀑廢載軸) sabon
	June 15.	conducted an examination of the warlords at Danpungjeong(丹楓亭), took a view of the waterfall at Okryucheon(玉流川) with the vassals	3: Vol. 182, Naewonguanpok gaengjaechuk(內苑觀瀑廢載軸) sabon
	Nov. 18.	held the Seoljungryonghohwe(雪中龍虎會) at Chundangdae(春塘臺)	1, 2: the report of that day
	unknown	wrote the sanglangmun(上梁文) of Sugamgae(壽康齋)	3: Vol. 54, jabjeo(雜著) 1
12 th yr.(1788)	unknown	held the first Sanghwajoeoyeon(賞花釣魚宴), 7 members participated	3: Vol. 182, Naewonsangwha gaengjaechuk(內苑賞花廢載軸) ganbon
13 th yr.(1789)	spring	admired the natural landscape of the Rear Garden(後園)	3: Vol. 175, 「Ildukrok(日得錄)」 15, Hunoe(訓語) 2
14 th yr.(1790)	Oct. 17.	held the Seoljungryonghohwe(雪中龍虎會) at Chundangdae(春塘臺)	1, 2: the report of that day
15 th yr.(1791)	March 17.	held the first Seshimdae(洗心臺) Excursion and made regularly events, 16 members participated	1, 2: the report of that day 3: Vol. 182, Seshimdae gaengjaechuk(洗心臺廢載軸) ganbon 3: Vol. 6, Poetry 2
	Dec. 20.	held the Seoljungryonghohwe(雪中龍虎會) at Chundangdae(春塘臺)	1, 2: the report of that day
16 th yr.(1792)	March 18.	bestowed the fruits after discharged arrows at Chundangdae(春塘臺) with the vassals.	1, 2: the report of that day
	March 20.	held the second Seshimdae(洗心臺) Excursion, 25 members participated	1, 2: the report of that day 3: Vol. 182, Seshimdae gaengjaechuk(洗心臺廢載軸) ganbon
	March 21.	held the second Sanghwajoeoyeon(賞花釣魚宴), 29 members participated	1, 2: the report of that day 3: Vol. 6, Poetry 2
	April 8.	discharged arrows at the Palace Garden on Lotus Lantern Day(放燈日)	1, 2: the report of that day
	Nov. 26.	held the Seoljungryonghohwe(雪中龍虎會)	1, 2: the report of that day 3: Vol. 182, Seoljungryonghohwe yeonuchuk(雪中龍虎會聯韻軸) ganbon

Table 1. Continued

17 th yr.(1793)	Feb. 28.	bestowed the liquor and some eatables after discharged arrows at Chundangdae(春塘臺) with the vassals and admired the natural landscape of the Rear Garden(後園)	1, 2: the report of that day
	March 20.	held the third Sanghwajoeoyeon(賞花釣魚宴) according to the history and legends connected with the Nanjeongsugei(蘭亭修禊), 39 members participated	1: appendix, the records of the King Jeongjo's life⑦ 2: the report of that day
	unknown	wrote the sanglangmun(上梁文) of Buyongjeong(芙蓉亭)	3: Vol. 55, jabeo(雜著) 2
18 th yr.(1794)	March 13.	held the third Seshimdae(洗心臺) Excursion, 30 members participated	1, 2: the report of that day 3: Vol. 182, Seshimdae gaengjaechuk(洗心臺廣載軸) ganbon
	March 15.	held the fourth Sanghwajoeoyeon(賞花釣魚宴), 54 members participated	1, 2: the report of that day 3: Vol. 6, Poetry 2
19 th yr.(1795)	March 7.	held the fourth Seshimdae(洗心臺) Excursion, 55 members participated	1, 2: the report of that day 4: Vol. 16, 「Jachanmyojimyung(自撰墓誌銘)」 jibjoongbon
	March 10.	the 20th anniversary of the enthronement held the fifth Sanghwajoeoyeon(賞花釣魚宴), 98 members participated	1, 2: the report of that day 3: Vol. 6, Poetry 2 4: Vol. 2, Poetry 4: Vol. 4, 'Poem of Buyongjeong(芙蓉亭)' 4: Vol. 14, gi(記), 'Buyongjeong Siyeonki(芙蓉亭侍宴記)' 4: Vol. 16, 「Jachanmyojimyung(自撰墓誌銘)」 jibjoongbon
20 th yr.(1796)	spring	composed a poem after discharged arrows at the Palace Garden(內苑), 15 members participated	3: Vol. 182, Mokgukmyeong gaengjaechuk(木屐銘廣載軸) sabon
21 th yr.(1797)	spring	postponed the Sanghwajoeoyeon(賞花釣魚宴) account of the state council or Yoon, Si-dong's death	3: Vol. 177, 「Ildukrok(日得錄)」 17, Hunoe(訓語) 4
	Nov. 18.	held the Seoljungryonghohwe(雪中龍虎會) at Chundangdae(春塘臺)	1, 2: the report of that day
24 th yr.(1800)	June 28.	49 years old demised at Yungchunheon(迎春軒) in Changgyeonggung(昌慶宮)	

〈Legend〉 1: 『Jeongjosilrok(正祖實錄)」, 2: 『Iseongrok(日省錄)」, 3: 『Hongjae-chönsö(弘齋全書)」
4: 『Dasansimunjib(茶山詩文集)」, 5: 『Cheongjangguanjeonseo(靑莊館全書)」, 6: 『Pyoamyugo(豹菴遺稿)」

IV. 결론

이상과 같이 정조가 궁원에서 즐긴 유락의 사례들을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조 재위기의 '상화조어연'은 규례를 정하고 정례화했다는 점에서 여타의 어연(御宴)과 차별성이 있다. 이 연회는 규장각이 주관하고 규장각의 각신을 위한 자리였다. 정조는 이를 통해 정치에 간여하는 외척의 폐단을 경계하고 어진 사대부를 우대함으로써 바른 정치를 하려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다. 정조 재위기에 다섯 차례에 걸쳐 행사가 있었다.

둘째, 세심대 놀이는 요절한 부친을 사모하는 정조의 비극적 개인사를 바탕으로 한다. 이 놀이 역시 정례화 했으나 참석 범위를 별도로 정하진 않았다. 정조 재위기에 네 차례에 걸쳐 행사가 있었다.

셋째, 정조는 여름날 많은 비가 내린 직후에 맑은 물이 시원하게 흘러넘치는 옥류천의 '폭포 구경'을 즐겼다. 이는 옥류천 일대의 일상적인 경관이 아니라 많은 비가 내린 직후에만 볼

수 있는 임시적인 경관을 즐겼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넷째, '설중용호회'는 장용영과 비롯해 삼군문의 각 대장들, 별근직과 선전관 등 무반요직에 있는 무신들을 위한 행사이다. 이 행사는 한 겨울에 열렸고 뜰에 숯불을 피워 각자 쇠 꼬치에 꿩을 꿰어 구워 먹게 했다. 술을 내리고 음악을 연주하여 상하가 고락을 함께 나누는 것을 강조했다. 정조 재위기에 일곱 차례에 걸쳐 행사가 있었다.

다섯째, 정조는 겨울철에 난로회를 열기도 했다. 또 난로회의 고사를 따라 술과 음식을 내려 규장각, 홍문관, 승정원 등 문신들의 노고를 위로하기도 했다. 정조는 당시 세간에 널리 퍼져있는 난로회라는 유락 행위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정조는 활쏘기에 능했으며 이를 매우 즐겼다. 정조는 주(周)대의 제도를 고증하여 연사례의 의식과 절차를 복원하고자 했으며 재위 기간에 두 차례의 연사례를 열었다. 이밖에 정조는 사적인 유락활동으로 활쏘기를 즐겼던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된 기록은 많지 않다.

일곱째, 정조는 일상의 바쁜 현실과 이를 벗어나 독서와 한가함을 즐기고 싶은 마음과의 괴리를 후원에서 달랠던 것으로

보인다. 또 정조는 후원의 자연경관을 통해 우주만물의 생성 원리와 변화 질서를 상징하는 주역의 의미를 일깨우기도 했다.

여덟째, 정조가 궁원 활용하는데 있어서 두드러진 특징은 ‘군신동락(君臣同樂)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이다. 이는 각 봉당에 더해 시파와 벽파로 나뉘어 대립하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정조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측근 신료들의 지원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정조 관련 여러 고문헌 중 번역물에 국한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과제는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번역 성과물이 축적됨으로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 1) 『동각잡기』 하 「본조선원보록」 2(한국고전종합DB)[15].
 주 2) 『정조실록』 5년 2월 13일, 「규장각에서 고사 절목을 올리다」(한국고전종합DB)[9].
 주 3) 『정조실록』 5년 7월 27일, 정조는 규장각 제신들의 9월 9일 유하정 연회를 허락하는 하교를 내렸다. 반면에 『일성록』 정조 5년 9월 18일 기사에는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 백성들이 우환이 심하여 연회를 취소한 기록도 있다(한국고전종합DB)[9][10].
 주 4) 『홍재전서』 제177권 「일득록」 17 훈어 4(한국고전종합DB)[12].
 주 5) 『정조실록』 19년 3월 10일 「내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낚시질을 하다」(한국고전종합DB)[9].
 주 6) 『홍재전서』 제182권 「군서표기」 4 어정(御定) 4 내원상화경재축(內苑賞花廣載軸) 간본(한국고전종합DB)[12].
 주 7) 『일성록』 정조 16년 3월 21일, 「편전(便殿)에서 각신들을 소견하고, 이어 내원에서 함께 꽃과 물고기를 구경하였다」(한국고전종합DB)[10].
 주 8) 『홍재전서』 제176권 「일득록」 16 훈어 3(한국고전종합DB)[12].
 주 9) 『정조실록』 부록 「정조대왕 행장」 ㉑(한국고전종합DB)[9].
 주 10) 『일성록』 정조 18년 3월 15일(한국고전종합DB)[10].
 주 11) 『정조실록』 19년 3월 10일, 「내원에서 꽃구경을 하고 낚시질을 하다」(한국고전종합DB)[9].
 주 12) 『일성록』 정조 19년 3월 10일(한국고전종합DB)[10].
 주 13) 『홍재전서』 제177권 「일득록」 17 훈어 4(한국고전종합DB)[12].
 주 14) 「다산시문집」 제14권 「부용정시연기(芙蓉亭侍宴記)」(한국고전종합DB)[14].
 주 15) 「다산시문집」 제16권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한국고전종합DB)[14].
 주 16) 『홍재전서』 제176권 「일득록」 16 훈어(訓語) 3(한국고전종합DB)[12].
 주 17) 경쟁시란 특정한 지은 시의 운(韻)을 살려 화답한 시이며, 여러 경쟁시를 모아 권축(卷軸)으로 만든 것을 경쟁시축(廣載詩軸) 혹은 경쟁축(廣載軸)이라고 한다.
 주 18) 『홍재전서』 제182권 「군서표기」 4 어정(御定) 4 세심대경재축(洗心臺廣載軸) 간본(한국고전종합DB)[12].
 주 19) 『정조실록』 16년 3월 20일 기사(한국고전종합DB)[9].
 주 20) 『일성록』 정조 16년 3월 20일 기사(한국고전종합DB)[10].
 주 21) 『정조실록』 18년 3월 13일 기사(한국고전종합DB)[9].
 주 22) 『일성록』 정조 19년 3월 7일 기사(한국고전종합DB)[10].
 주 23) 「다산시문집」 제16권 자찬묘지명(自撰墓誌銘) 집중본(集中本)(한국고전종합DB)[14].
 주 24) 『홍재전서』 제182권 「군서표기」 4 어정(御定) 4 소요정경재축(逍遙亭廣載軸) 사본(한국고전종합DB)[12].
 주 25) 『홍재전서』 제175권 「일득록」 15 훈어(訓語) 2(한국고전종합DB)[12].
 주 26) 『홍재전서』 제4년 「춘저록」 4 「소요정기(逍遙亭記)」(한국고전종합DB)[12].
 주 27) 『홍재전서』 제5권 시(詩) 1(한국고전종합DB)[12].
 주 28) 『홍재전서』 제182권 「군서표기」 4 어정(御定) 4 내원관폭경재축(內苑觀瀑廣載軸) 사본(한국고전종합DB)[12].
 주 29) 『홍재전서』 제5권 시(詩) 1(한국고전종합DB)[12].

주 30) 『홍재전서』 제5권 시(詩) 1(한국고전종합DB)[12].
 주 31) 『홍재전서』 제48권 「책문」 1. 문(文)과 무(武)(한국고전종합DB)[12].
 주 32) 『정조실록』 5년 2월 18일 「무신(武臣)의 강시(講試)에 친립하는 의절(義節)을 정하다」(한국고전종합DB)[9].
 주 33) 국왕의 호위체제인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을 지칭함.
 주 34) 효종 때 설치한 국왕의 소수 정예 친위조직으로 왕의 신변보호를 위한 입직(入直), 시위(侍衛), 격간(摘奸) 등의 임무를 수행한 무반요직
 주 35) 어가(御駕)가 행차할 때 앞에서 훈도(訓導)하는 무관으로 이들은 장차 무반의 중추적 존재로 성장할 인적 자원으로 구성하였음.
 주 36) 『정조실록』 17년 1월 25일, 「장용영이 내영과 외영의 새로 정한 절목을 올리다」(한국고전종합DB)[9].
 주 37) 『홍재전서』 제182권 「군서표기」 4 어정(御定) 4 설중용호회연운축(雪中龍虎會聯韻軸)(한국고전종합DB)[12].
 주 38) 『홍재전서』 제6권 시(詩) 2 「내원에서 연구를 짓다 소서를 아울러 쓰다」(한국고전종합DB)[12].
 주 39) 『일성록』 정조 16년 11월 26일, 「영화당(映花堂)에 나아가 … 고풍(古風)을 내렸다」(한국고전종합DB)[10].
 주 40) 『일성록』 정조 2년 11월3일 「춘당대에 나아가 내시사(內試射)를 행하였다」(한국고전종합DB)[10].
 주 41) 『정조실록』 5년 12월 21일, 「춘당대에 나아가 선전관과 선천 금군을 시강하다」(한국고전종합DB)[9].
 주 42) 『정조실록』 9년 11월 18일, 「선전관의 시강과 관공의 시사를 행하고 시상하다」(한국고전종합DB)[9].
 주 43) 『정조실록』 14년 10월 27일 「춘당대에 나가 별군직과 선전관에게 활쏘기 시험을 보다」(한국고전종합DB)[9].
 주 44) 『정조실록』 15년 12월 20일, 「춘당대에 나아가 선전관의 사강을 거행하다」(한국고전종합DB)[9].
 주 45) 『일성록』 정조 16년 11월 26일(한국고전종합DB)[10].
 주 46) 『홍재전서』 제182권 「군서표기」 4 어정(御定) 4 「설중용호회연운축(雪中龍虎會聯韻軸)」(한국고전종합DB)[12].
 주 47) 『정조실록』 21년 11월 18일, 「춘당대에 나아가 대신들과 활을 쏘고, 고기와 꿩을 제신들에게 먹이다」(한국고전종합DB)[9].
 주 48) 송(宋) 효종(孝宗)이 궁궐 뜰에 목마를 설치하여 기사(騎射)를 연습하고 쇠뿔등이로 힘을 단련하면서 나라를 부흥시키고자 했다는 고사를 말한다.
 주 49) 『정조실록』 부록 정조대왕 행장(行狀)㉑(한국고전종합DB)[9].
 주 50) 『연암집』 제3권 「공작관문고」 「만휴당기(晩休堂記)」의 주에서 재인용(한국고전종합DB)[19].
 주 51) 『연암집』 제3권 「공작관문고」 「만휴당기(晩休堂記)」(한국고전종합DB)[19].
 주 52) 『홍재전서』 제7권 시(詩) 3(한국고전종합DB)[12].
 주 53) 『홍재전서』 제182권 「군서표기」 4 어정(御定) 4 매각경재축(梅閣廣載軸) 사본(한국고전종합DB)[12].
 주 54) 『일성록』 정조 6년 10월3일(한국고전종합DB)[10].
 주 55) 『홍재전서』 제182권 「군서표기」 4 어정(御定) 4 연사경재축(燕射廣載軸) 사본(한국고전종합DB)[12].
 주 56) 『정조실록』 부록 「정조대왕 행장(行狀)」㉑(한국고전종합DB)[9].
 주 57) 『홍재전서』 제176권 「일득록」 16 훈어 3(한국고전종합DB)[12].
 주 58) 『홍재전서』 제176권 「일득록」 16 훈어 3(한국고전종합DB)[12].
 주 59) 『홍재전서』 제176권 「일득록」 16 훈어 3(한국고전종합DB)[12].
 주 60) 『정조실록』 4년 5월 22일, 「교리(校理) 강침(姜忱)이 왕이 자주 후원(後苑)에서 사예(射藝)를 겨루는 폐단을 상소하다」(한국고전종합DB)[9].
 주 61) 『정조실록』이나 『일성록』에 활쏘기 시험인 시사(試射)에 관한 기록은 무수히 많다. 시사는 매달 치르는 삭시사(朔試射), 큰 경사가 있을 때 치르는 별시사(別試射), 녹봉(祿俸)을 주기 위해 치르는 녹시사(祿試射), 시상을 위한 상시사(賞試射) 등이 있었다. 이러한 여러 시사를 무예정(武藝廳), 별군직(別軍職), 선전관(宣傳官), 금군(禁軍), 장용영(壯勇營), 내금위(內禁衛), 초계문신(抄啓文臣) 등 각 기관이나 조직별로 시행하기도 했으니 그 횟수가 많은 것이 당연하다. 또 경모궁(景慕宮)이나 화성(華城) 등에 왕이 행차했을 때마다 수행한 장신(將臣)과 무사 등의 시사(試

射)를 행하였다. 이러한 시사는 궁원에서의 '유락(遊樂)활동'과는 무관하다.

- 주 62) 『청장관전서』 제20권 아정유고 12(한국고전종합DB)[23].
- 주 63) 『다산시문집』 제14권 기(記) '홍절도사(洪節度使)에게 임금이 하사한 각궁(角弓)의 기'(한국고전종합DB)[14].
- 주 64) 『홍재전서』 제175권 「일득록」 15 훈어 2(한국고전종합DB)[12].
- 주 65) 『홍재전서』 제177권 「일득록」 17 훈어 4(한국고전종합DB)[12].
- 주 66) 『홍재전서』 제177권 「일득록」 17 훈어 4(한국고전종합DB)[12].
- 주 67) 『국조보감』 제73권 정조조 5, 16년(한국고전종합DB)[27].
- 주 68) 『다산시문집』 제14권 기(記) 「부용정시연기(芙蓉亭侍宴記)」(한국고전종합DB)[14].
- 주 69) 『일성록』 정조 16년 3월 2일 기사(한국고전종합DB)[10].

REFERENCES

- [1] Pak, D. U. and Seo, S. H. translation and annotation(2009). 『Pyoam Kang Se Whang's Complete Prose Works』. 姜世晃, 『豹菴遺稿』. Seoul: Somyong Publishing Co.
- [2] Hong, H. S.(2014). Content and Meaning of Royal Garden Sighting Event in Pyoam's 「Hogayugeumwong」.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2): 1-11.
- [3] Yi, S. H.(2000). An interpretation of Landscape of Changdök Palace Rear Garde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8(1): 1-11.
- [4] Jung, W. J., Oh, L. C. and Sim, W. K.(2013). Study on the Prototype of Rear Garden in Changdeok Palace through Gang Sewhang's 「Record of Strolling with King in the Forbidden Garden」.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1(1): 87-97.
- [5] Kim, H. W., Kim, Y. K. and Choi, J. H.(2000). A Study on the Function of Space in Palace by Analyzing King's Activity Written in History of Cho-su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8(3): 41-50.
- [6] Kim, H. W.(2007). A Study on the Function of Space of the Chandok Palace by Analyzing King's Activity Written in the Annals of the Josun Dynasty.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5(3): 40-52.
- [7] Jung, W. J. and Sim, W. K.(2011). Historical Studies on the Uses of the Rear Garden at Changkyung Pala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1): 71-89.
- [8] Ahn, D. H.(2009). The Personal Aspect of King Jeonjo from His Letter Album. Daedong Munhwa Yeon'gu(Study of Eastern Culture), Vol. 66: 145-174.
- [9] 『Jeongjosilrok(正祖實錄)』 (http://db.itkc.or.kr, DB of Korean Classics)
- [10] 『Ilseongrok(日省錄)』 (http://db.itkc.or.kr, DB of Korean Classics)
- [11] Choi, S. H.(1988). Bibliographical Notes of 「Ilseongrok」. (Minjokmunwhchujinhoe compiled 「日省錄」), pp. 1-20.
- [12] 『Hongjae-chönsö(弘齋全書)』 (http://db.itkc.or.kr, DB of Korean Classics.)
- [13] Kim, M. S.(2000). The Bibliographical Features of Hongjae-chönsö (『弘齋全書』). Jangseogak, 3: 7-33.
- [14] 『Dasansimunjib(茶山詩文集)』 (http://db.itkc.or.kr, DB of Korean Classics)
- [15] 『Donggakjabki(東閣雜記)』 (http://db.itkc.or.kr, DB of Korean Classics)
- [16] Jung, O. J.(2012). Knowledge Based Culturally Strong Joseon. Paju: Dolbegae.
- [17] Hong, H. S.(2011). Meaning of Plantain(*Musa basjoo*) Planting and Design Use through Classic Poetry and Pros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29(2): 52-62.
- [18] Kim, J. H.(2008). The Politics and Innovative Policies of King Jeongjo. Journal of Korean and Asian Political Thoughts, 7(2): 59-85.
- [19] 『Yeonamjib(燕巖集)』 (http://db.itkc.or.kr, DB of Korean Classics)
- [20] Kim, S. B.(2015). Korean Food in Paintings. Seoul: Hollym.
- [21]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http://encykorea.aks.ac.kr)
- [22] Kim, H. C. compiled(2013). 『The Analects of Confucius』. Confucius, 『論語』. Seoul: Hongik Publishing Co.
- [23] 『Cheongjangkuanjeonseo(靑莊館全書)』 (http://db.itkc.or.kr, DB of Korean Classics)
- [24] http://archive.hansik.org(Korean Food Archive)
- [25] Shin, W. B.(2009). King Jeong Jo's View of I-Ching. Youngsan Journal of East Asian Cultural Studies, Vol. 3: 98-127.
- [26] Yoo, B. H.(2001). Dream of Jeongjo the Great. Seoul: Shingu Publishing.
- [27] 『Gookjobogam(國朝寶鑑)』 (http://db.itkc.or.kr, DB of Korean Classics)

원 고 접 수 일: 2015년 10월 26일

심 사 일: 2015년 11월 24일 (1차)

게 재 확 정 일: 2015년 11월 24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